

2025+

numbers
vol. 304

한국교회 주요 지표 변화 (2025년 2분기)

향후 목회 중점, '다음세대 교육, 심방/전도' 강화 흐름 보여!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동반 자살·살해 후 자살 실태
- ② 서울시민의 가족 형태 변화

2025.9. 2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향후 목회 중점, ‘다음세대 교육, 심방/전도’ 강화 흐름 보여!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시작 시점부터 한국 교회의 주요 지표(주일 예배 참석률, 신앙 활동, 신앙수준, 소그룹 참여 등)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왔다. 2025년 5월에도 동일 항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넘버즈 304호에서 발표한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현장예배 참석률이 80% 진입을 앞두고 다시 주춤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 의존을 줄이고 현장 중심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대 청년들의 신앙수준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올해(5월)는 소형교회의 성인 예배 회복률이 대형 교회보다 약진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사역을 늘리고, 활발하게 움직인 교회일수록 주요 사역 회복률과 교회 재정 상황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기보다, 예배와 모임,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때 교회가 회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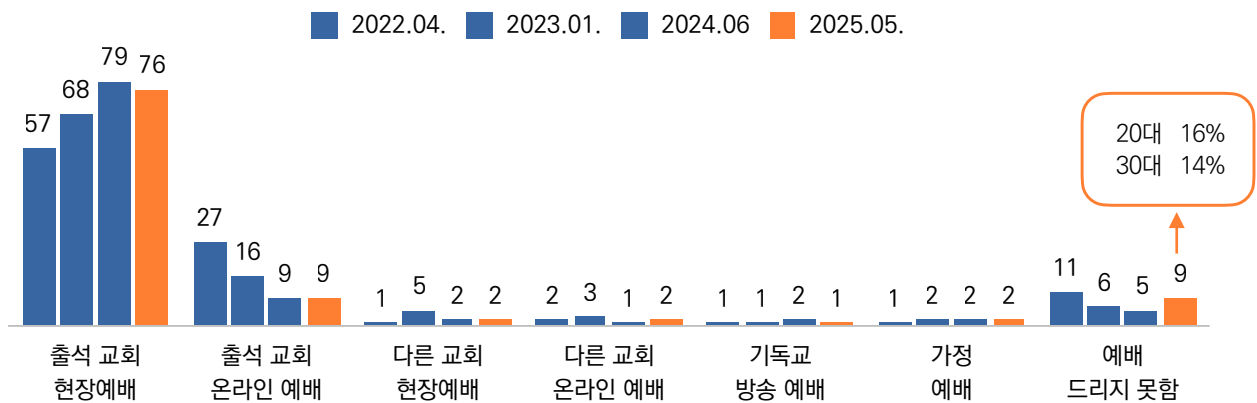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예배/신앙생활: 출석교인] 전국적으로 주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비율 9%!

- 교회 출석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지난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묻은 결과, 출석 교회 현장예배를 드린 비율은 2024년 79%까지 상승했으나, 2025년 76% 소폭 하락하며 80% 진입에 실패했다.
- 반면, '예배 드리지 못함' 비율은 9%로 증가했는데, 특히 20대(16%), 30대(14%)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온라인 예배자는 작년 이후 9%로 10명 중 1명 가량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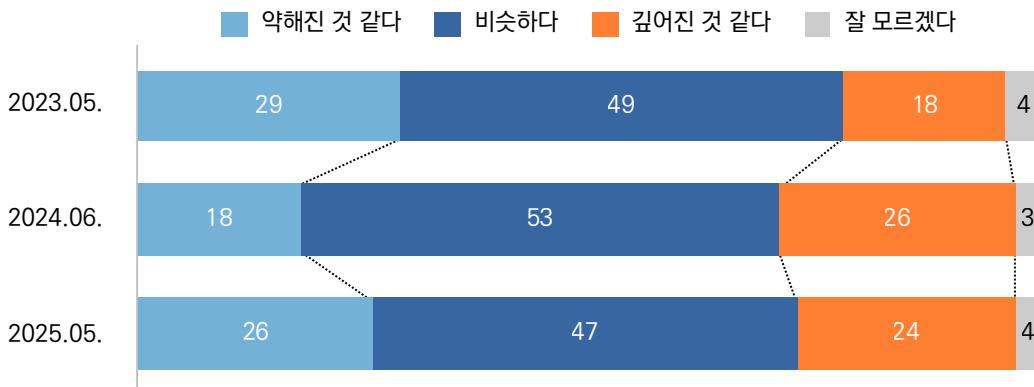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 드린 예배 형태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전년(2024년) 대비, 성도들의 신앙수준 약화!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성도들의 신앙수준 평가에서는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2024년 18%에서 2025년 26%로 다시 늘어났다. 반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전히 절반 가까운 성도는 '비슷하다'고 응답했지만, 2024년의 긍정 흐름이 이어지지 못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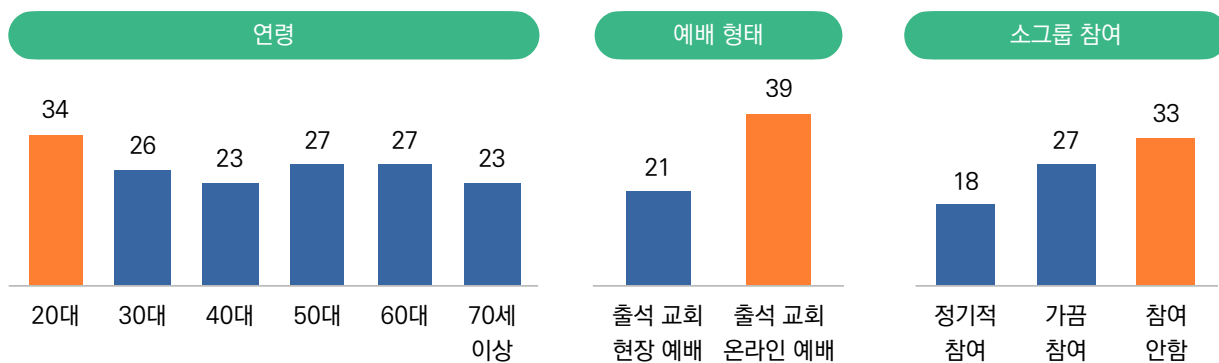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수준 변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20대 청년·온라인 예배자·소그룹 미참여자’, 신앙 약화 현상 두드러져!

-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비율은 특히 20대(3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배 형태별로는 온라인 예배자(39%)가 현장예배자(2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 또한, 소그룹 참여별로는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는 18%에 그친 반면,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33%로 나타나, 소그룹 활동이 개인 신앙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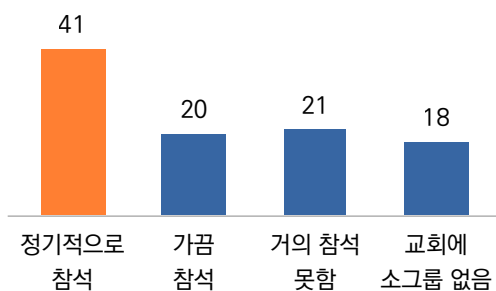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예배 형태별/소그룹 참여별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 약해짐’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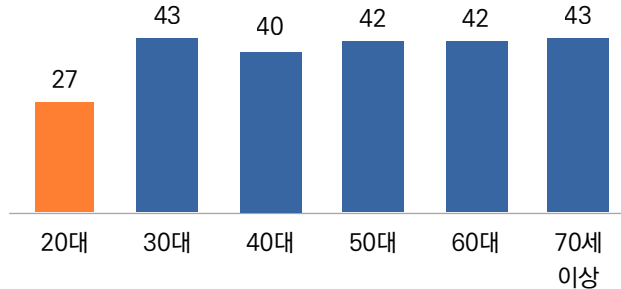
소그룹 정기적 참석자, 전체 41% vs 20대 27%에 그쳐!

- 성도들의 신앙 소그룹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신앙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은 전체 41%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27%에 그쳐 40%대 초반인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낮았다. 30대 이후부터 고연령층까지는 소그룹 정기적 참여율이 비슷했다. 청년층의 신앙 소그룹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신앙 소그룹 참석 여부
(2025, 교회 출석 기독교인, %)



[그림] 연령별 ‘신앙 소그룹 정기적 참석’ 비율
(2025,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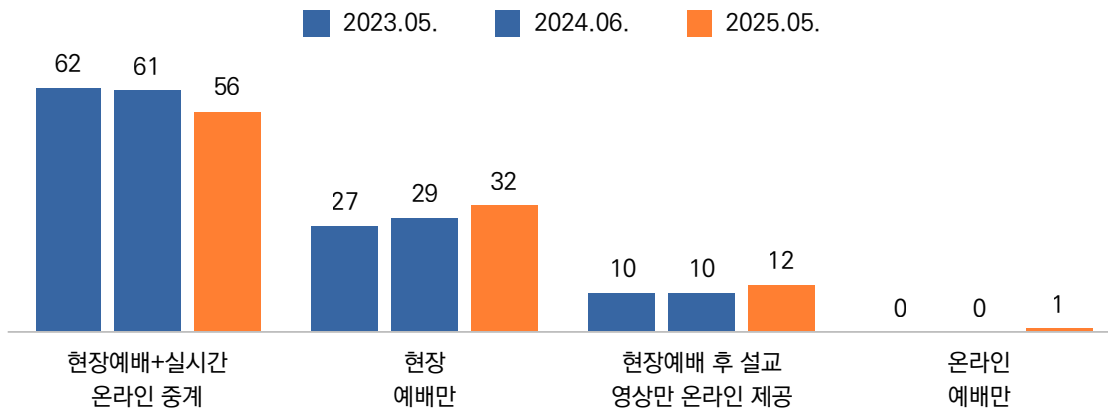
02

[예배와 교회 사역 회복: 목회자]

한국교회, 실시간 온라인 없애고 현장예배로 회귀 움직임 보여!

- 현재 시무교회의 주일예배 형태를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현장예배+실시간 온라인 중계’(56%)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23년 62%, 2024년 61%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 반면 ‘현장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32%로 2023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즉 3개 교회 중 1곳은 실시간 온라인을 버리고 현장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의 현장예배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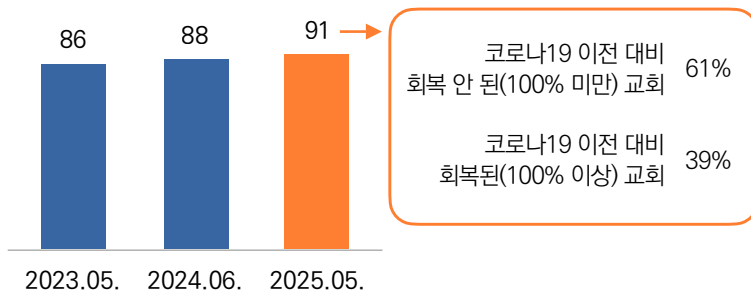
[그림] 현재 주일 예배 형태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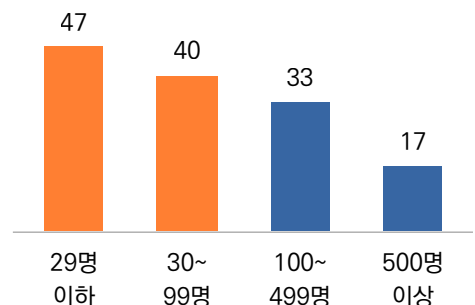
성인 예배 회복률, 소형교회가 대형교회보다 높다!

- 코로나19 이전 주일 현장예배 참석자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교회 성인 예배 회복률(현장예배)은 어느 정도일까? 성인(장년) 예배는 2025년 91%로 조사돼, 2023년 86%, 2024년 88%에 이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25년 5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인 예배 참석률이 100% 이상인 교회’는 전체의 39%로 10곳 중 4곳 정도가 ‘회복된’ 교회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99명 이하 소형교회가 중대형교회보다 상대적으로 ‘회복된’ 교회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성인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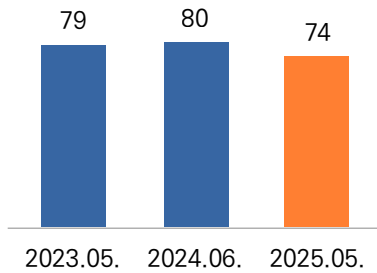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규모별 ‘회복된(100% 이상) 교회’ 비율 (2025,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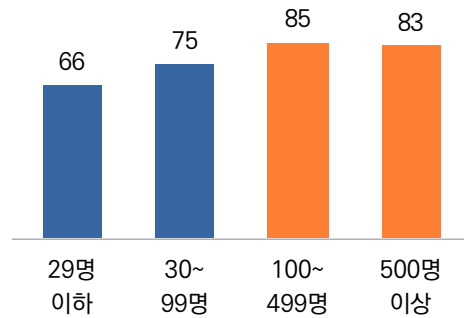
교회학교 예배, 성인 예배와 달리 회복 더뎠다

- 이번에는 교회학교 회복률을 살펴본다. 교회학교 현장예배 참석률은 2025년 74%로 2년 전인 2023년(79%)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 예배와는 대조적인 추이로, 교회학교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 특히, 교회 규모별로 보면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회복률이 66%로 중대형 교회(100~499명 85%, 500명 이상 83%)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학교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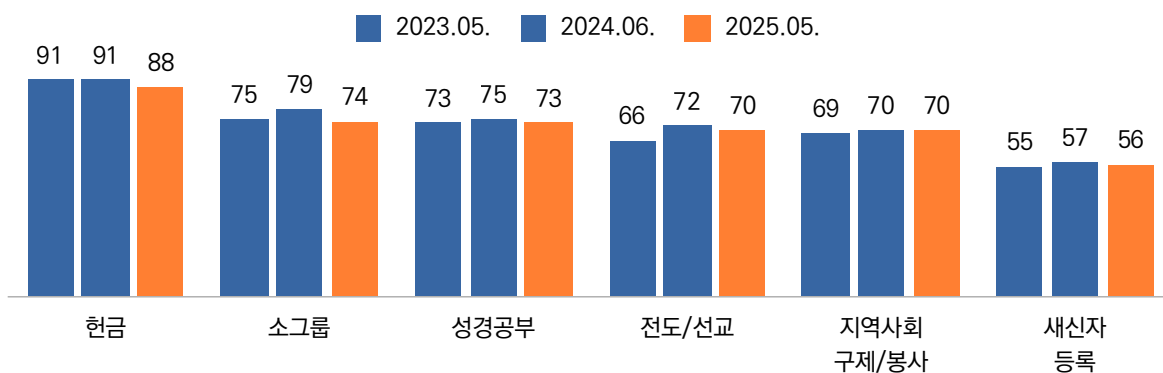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규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학교 예배' 참석률
(2025, 담임목사, 평균, %)



사역 회복세 주춤, 새신자 유입은 코로나 이전 대비 56%에 그쳐!

- 코로나19 이전 사역을 100으로 봤을 때, 교회 사역 회복률은 2025년 들어 헌금을 포함한 주요 사역 항목에서 작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헌금은 2024년 91%에서 2025년 다시 80%대(88%)로 떨어졌고, 특히, '소그룹'은 전년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컸다(2024년 79%→2025년 74%).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사역 회복률 (담임목사, 평균, %)



젊은 목회자, 소그룹 잘되는 교회일수록 주요 사역 회복률 높다

- 이번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주요 사역 평균 회복률을 교회 특성별로 살펴본다. 그 결과, 담임 목회자가 젊을수록, 소그룹 운영이 잘 될수록, 코로나 대비 전반적 교회 사역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수록(증가한 경우) 상대적으로 사역 회복률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 사역 활동이 늘어난 교회는 사역 회복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눈에 띄어, 교회 활동성과 사역 회복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교회 특성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사역 회복률 (2025, 담임목사, 평균, %)

		헌금	소그룹	성경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등록
전체		88	74	73	70	70	56
담임목사 연령	49세 이하	93	81	81	77	76	68
	50대	86	72	70	69	70	54
	60세 이상	86	68	66	60	64	43
소그룹 활성화 수준	잘 되지 않음	79	46	53	57	59	41
	보통	83	73	67	67	64	49
	잘 되고 있음	99	98	92	81	85	72
코로나 대비 교회 사역 활동 참여*	증가	103	102	99	94	89	85
	비슷	91	72	75	69	71	56
	감소	74	56	51	53	57	34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교회 사역 활동(예배/활동/모임 등)의 양이나 종류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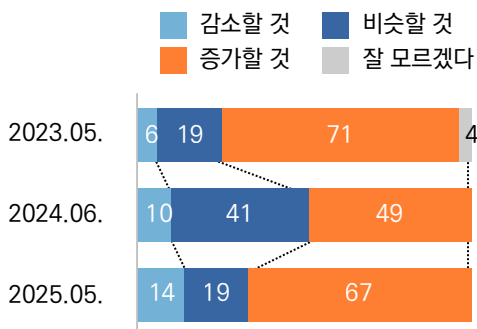
03

[교회의 전망과 재정 상황: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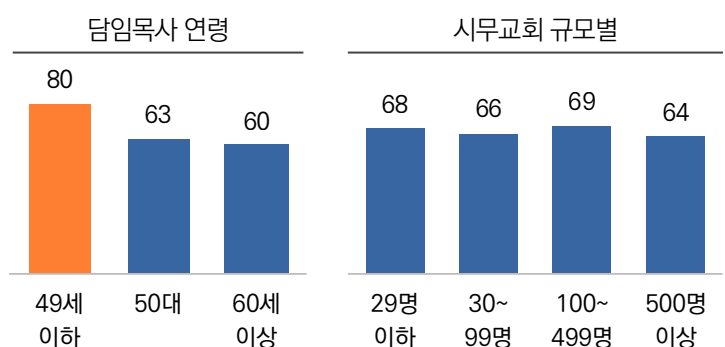
향후 출석 교인 수 전망 ‘낙관적’, 교회 규모별 차이 없어!

- 현재 대비 향후 출석 교인 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담임목사(2025년 기준)의 67%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낙관적 전망이 전년(49%)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감소할 것’ 응답은 2년 연속 계속 높아져 점점 양극화가 심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 연령별로는 49세 이하 담임목사(80%)가 50대(63%), 60세 이상(60%)보다 교인 증가에 더 큰 기대를 보였다.
- 그러나 교회 규모별로는 소형 교회(29명 이하 68%)부터 대형 교회(500명 이상 64%)까지 큰 차이가 없어,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낙관적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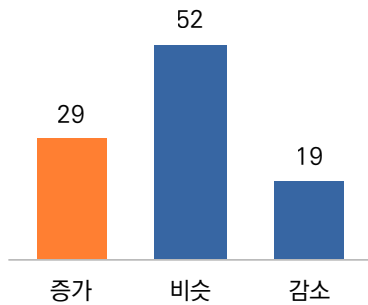
[그림] 향후 교인 수 ‘증가’ 예상 비율 (2025,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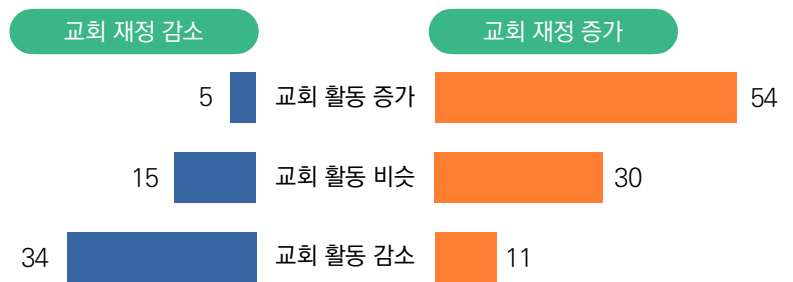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 대비 전반적인 사역 활동 늘린 교회일수록 교회 재정도 증가!

- 2024년 대비 2025년 교회 재정 상황을 살펴본 결과, '증가' 29%, '비슷' 52%, '감소' 19%로 감소보다는 증가 교회가 더 많았다.
- 전년 대비 올해(2025년) 교회 재정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코로나 이전 대비 '전반적인 교회 활동(예배, 활동 모임 등)을 늘린' 활발한 교회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2024년 대비 2025년 교회 재정 상황
(담임목사, %)



[그림] 2024년 대비 2025년 교회 재정 증감 비율
(담임목사, 코로나 대비 교회 활동/사역 참여 빈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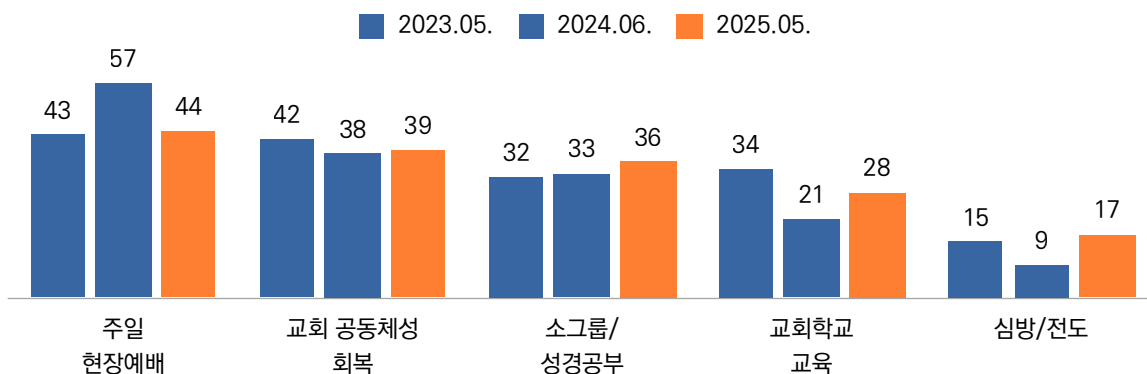
04

[향후 목회 방향: 목회자]

향후 목회 중점, '다음세대 교육·심방/전도' 강화 흐름 보여

- 앞으로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담임목사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주일 현장예배'가 44%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2024년 5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교회학교 교육'(28%)과 '심방전도'(17%)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항목이지만, 올해 각 7%p, 8%p 상승하며 다음세대 사역과 전도 사역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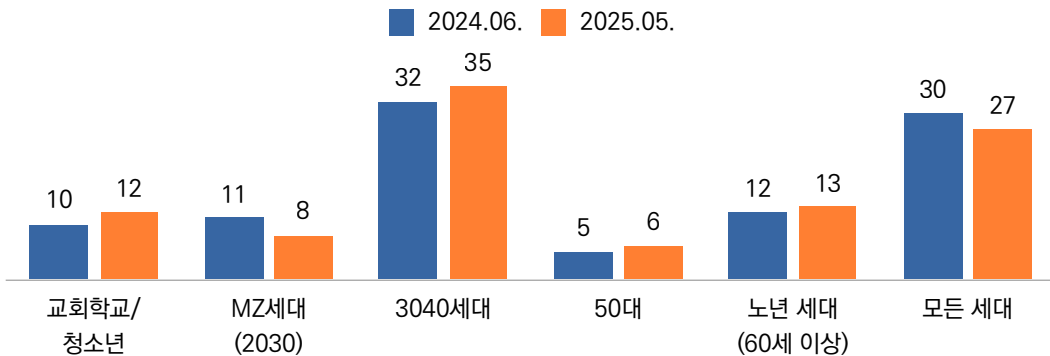
[그림] 목회 중점 방향 (담임목사, 1+2순위, 상위 5개, %)



향후 목회 중점 세대, 3040세대와 교회학교에 더 무게!

- 향후 목회적 중점을 뒤야 할 세대를 묻은 결과, 담임목사 3명 중 1명 이상은 '3040세대'(35%)를 지목했다. 이어 '모든 세대'(27%), '노년세대'(13%), '교회학교/청소년'(12%) 순이었다.
- 주목할 점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모든 세대', 'MZ세대'는 하락한 반면, '교회학교/청소년' 비율은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앞서 목회 중점 방향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3040세대 응답률도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해, 목회자들의 3040세대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목회 중점 세대 (담임목사, %)



※ 출처

〈개신교인 조사〉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768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51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2024.06. :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2024.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2025.05.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6.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목회자 조사〉

2023.05.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2024.01.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 2024.01. (전국 담임목사 526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5.)
 2024.06.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 목회실태 조사', 2024.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7.~06.03.)
 2025.05. : 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5.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5.05.23.~05.28.)

이번호 요약

1. 한국교회, 실시간 온라인 없애고 현장예배로 회귀 움직임 보여

- 현재 시무교회의 주일예배 형태를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현장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32%로 2023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즉 3개 교회 중 1곳은 실시간 온라인을 버리고 현장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의 현장예배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성인 예배 회복률, 소형교회가 대형교회보다 높다!

- 2025년 5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인 예배 참석률이 100% 이상인 교회’, 즉 회복된 교회는 전체의 39%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로 보면 99명 이하 소형교회가 중대형교회보다 상대적으로 ‘회복된’ 교회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향후 목회 중점, ‘다음세대 교육·심방/전도’ 강화 흐름 보여

- 향후 목회 중점에 대해 담임목사의 44%가 ‘주일 현장예배’를 꼽아 가장 높았으나, 전년(2024년 5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학교 교육’(28%)과 ‘심방전도’(17%)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항목이지만, 올해 각 7%p, 8%p 상승하며 다음세대 사역과 전도 사역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지용근 외, 규장)

관련 성경 구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4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20대 청년들의 신앙수준 약화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성인 예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교회학교 예배 참석률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과제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향후 목회의 중점을 묻는 질문에 ‘3040세대’가 단연 1위인 가운데 ‘다음세대 교육’(28%)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이는 교회의 미래가 결국 3040세대와 그들의 자녀인 다음세대 사역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는 3040세대 사역 활성화와 이들의 자녀(다음세대)와의 연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회학교 교육의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목회중점 방향에서 심방/전도 비율이 작년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이와 관련 심방과 전도를 단순 방문이 아닌, 돌봄과 관계 회복의 사역으로 재해석하여, 공동체성 강화와 새신자 유입을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넘버즈는 교회가 3040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들 그룹을 목회 사역의 중점 그룹으로 삼을 때 가장 효과적인 미래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다.

1. 동반 자살·살해 후 자살 실태
2. 서울시민의 가족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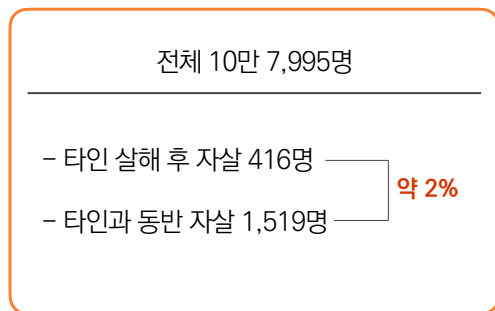
- ## 2. 서울시민의 가족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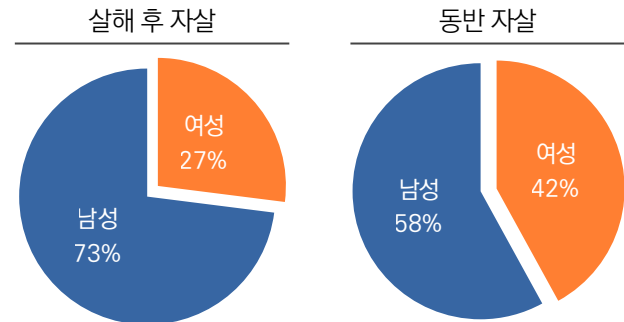
[동반 자살·살해 후 자살 실태] 동반 자살·살해 후 자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아!

- 최근 모녀 동반 자살이나 자녀·아내 등 가족 살해 후 자살 시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자료(동반 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본다.
- 한국생명존중재단의 2013~2022년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이 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0만 8천 명가량이었다. 이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519명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보면 ‘살해 후 자살’과 ‘동반 자살’ 모두 남성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살해 후 자살은 남성(7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지난 8년간(2013~2022) 자살 사망자 현황



[그림] 자살 사망자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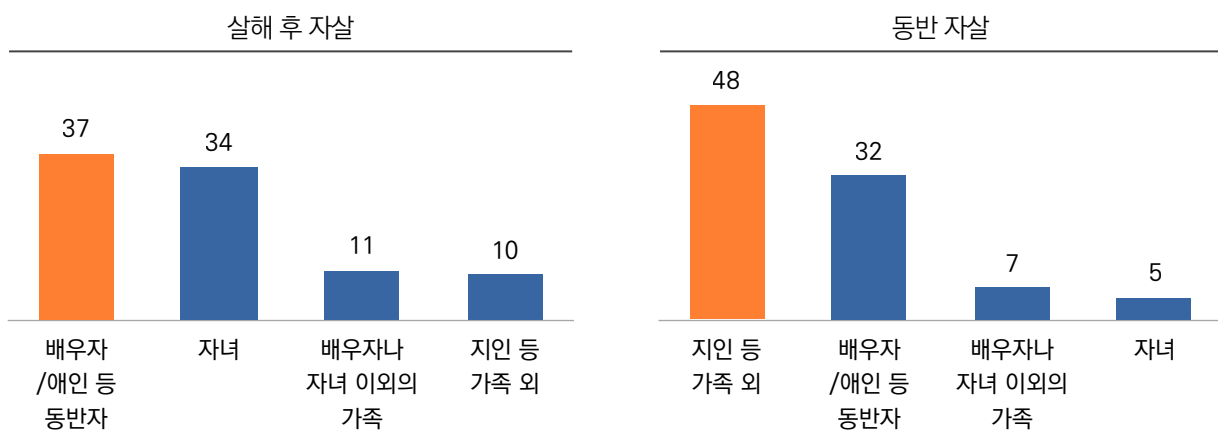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제17권 제2호)_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2025.08.31.

가해-피해 관계, 살해 후 자살은 ‘가족’, 동반 자살은 ‘가족 외’!

- 최근 8년간 발생한 살해 후 자살과 동반 자살 사례를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분석한 결과,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와 ‘자녀’가 각각 37%, 34%로,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 반면 동반 자살은 ‘지인 등 가족 외’(48%) 유형이 가장 높아 살해 후 자살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사망자 유형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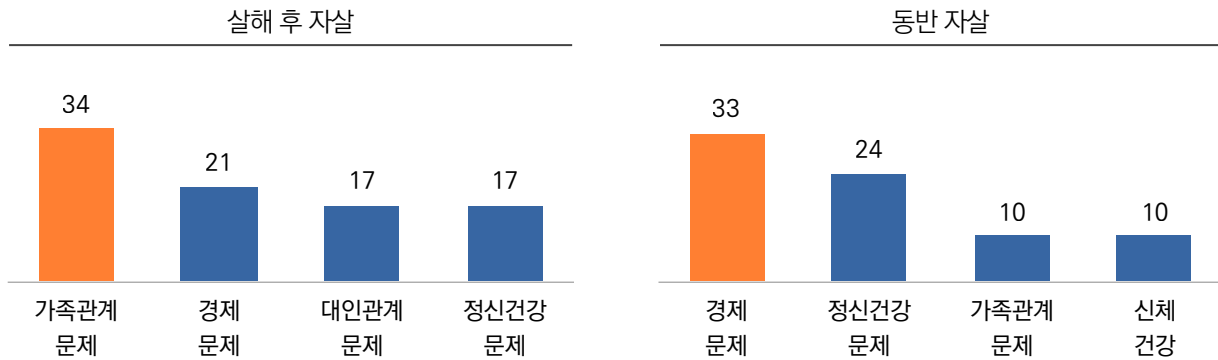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제17권 제2호)_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2025.08.31.

자살 원인, 살해 후 자살은 ‘관계 문제’, 동반 자살은 ‘경제·건강 문제’!

-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살해 후 자살의 경우 ‘가족관계 문제’(3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 문제’(21%), ‘대인관계 문제’(17%) 순이었다.
- 반면 동반 자살은 ‘경제 문제’(33%), ‘정신건강 문제’(24%), ‘가족관계 문제’(10%) 순으로 나타났다.
- 살해 후 자살은 주로 가족·대인관계 등 관계적 요인이, 동반 자살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자살 주요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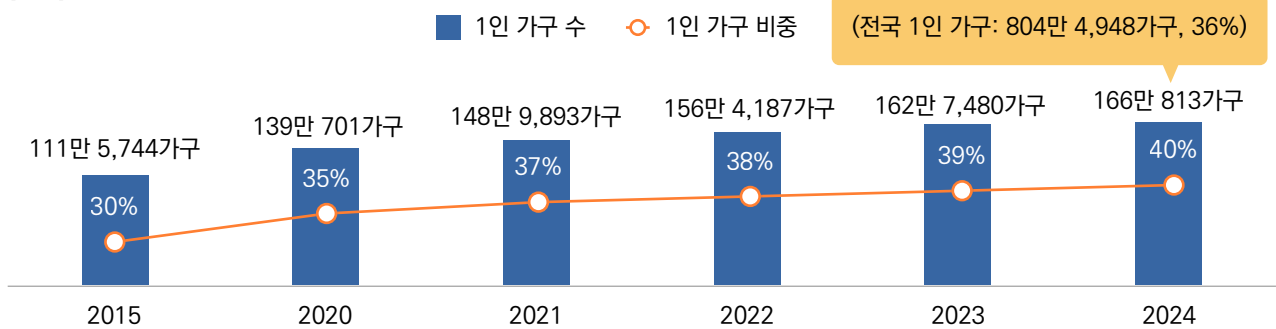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제17권 제2호)_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2025.08.31.



[서울시민의 가족 형태 변화] 서울 1인 가구, 5집 중 2집(40%)!

- 최근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가족의 변화상을 가구 중심으로 일부 살펴본다.
- 먼저 서울 1인 가구는 2015년 111만 5,744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66만 813가구로 늘었다. 서울 전체 일반가구의 40% 수준으로,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인 가구(36%)보다 높았다.

[그림] 서울 1인 가구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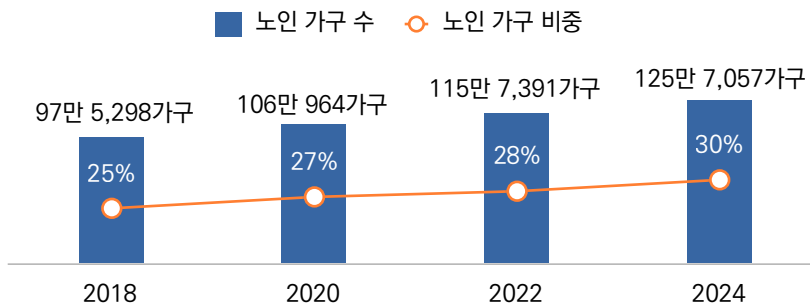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 2025.09.15.

서울 집, 10가구 중 3가구는 노인(65세 이상) 거주!

-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2024년 약 12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 10집 중 3집꼴(30%)로 노인이 사는 셈이다.

[그림] 서울의 노인가구(65세 이상)*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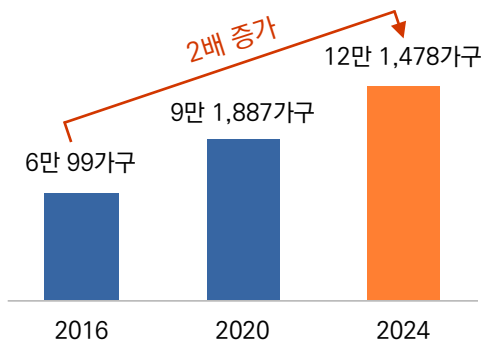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 2025.09.15.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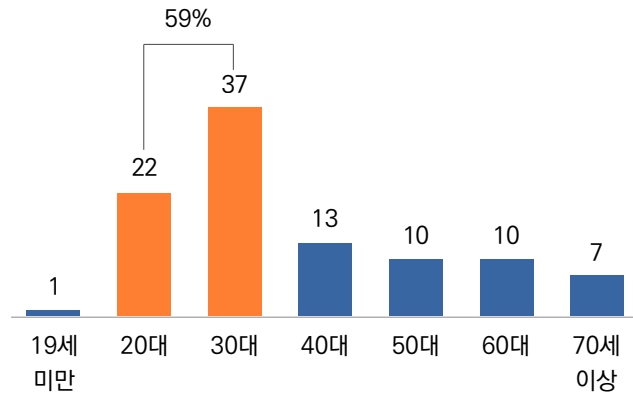
친구·직장동료 등 가족 아닌 ‘비친족 가구’, 지난 8년 새 2배 증가!

- 2024년 현재 서울의 비친족가구(사실혼, 친구/동료 동거 등)*는 12만 1,478가구였으며, 이는 8년 전인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 한편, 비친족가구는 주로 20~30대 젊은 층으로, 전체 10명 중 6명(59%)에 달했다.

[그림] 서울의 비친족 가구 수 추이



[그림] 서울의 비친족 가구 연령별 분포 (2024, %)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 2025.09.15.

*비친족가구는 '혼인·혈연·입양 등 법적 가족 관계가 아닌 두 명 이상의 성인이 가구 원 수 5인 이하로 동거하며 생계 또는 주거를 공유하는 가구'를 의미함.
이 범위에 는 동거커플, 사실혼 관계, 친구·동료·지인 동거 등이 포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35호 \(2025년 9월 3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64호 \(2025년 9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22대 국회 주요 평가, 검찰청 폐지 찬반

[이 대통령, 여가부 장관에 “남성 차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라”](#)

경향신문_2025.9.19.

사회 일반

[성인 10명 중 9명 “SI가 개인정보 침해할까 걱정된다”](#)

동아일보_2025.9.17.

[소비쿠폰 66% 음식점·마트·편의점서 끊었다…5.3조 사용완료](#)

연합뉴스_2025.9.18.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절반이 2030](#)

한겨레_2025.9.18.

[러닝 인구 천만 시대 ‘런심’의 경제학 \[스페셜리포트\]](#)

매일경제_2025.9.18.

[번아웃 간호사들 “칭찬과 보람, 책임감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겨레_2025.9.19.

[‘비혼 출산’ 5% 돌파... 결혼 안해도 출산·동거 사회 오려면?](#)

여성신문_2025.9.16.

[\[팩트체크\] 어르신 최고 인기앱은 틱톡?...스마트폰 사용실태 살펴보니](#)

연합뉴스_2025.9.22.

아동 · 청소년 · 청년

[“학폭 경험” 초중고생 2.5% 역대 최대...언어폭력 가장 많아](#)

한겨레_2025.9.16.

[한국 청년 60%만 “가정은 매우 중요”...세계 평균보다 17%p 낮아](#)

동아일보_2025.9.22.

[일자리 찾아 수도권 왔지만... 기업선 "경력직 뽑습니다"](#)

조선일보_2025.9.18.

경제 · 기업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연합뉴스_2025.9.17.

[여전히 힘든 아빠 육아휴직...작년 중앙부처서 10명 중 4명 사용\(종합\)](#)

연합뉴스_2025.9.1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취준생 'AI 역량', 선택 아닌 필수... 기업들 소통·직무 능력보다 AI](#)

[국민일보_2025.9.17.](#)

[사내 로맨스 주의보...사랑의 불시착이 기업의 불안으로 번진다](#)

[조선일보_2025.9.18.](#)

["추석이 무섭다"... 71만원 역대급 지출 예상에 한숨](#)

[조선일보_2025.9.22.](#)

[상반기 임금 3.5% 올랐지만...대기업 5.7% 오를 때 중기는 2.7%](#)

[연합뉴스_2025.9.21.](#)

국제 · 환경

[세계 경제학자 64% "AI가 향후 3년간 경제성장을 높일 것"](#)

[매일경제_2025.9.18.](#)

[100살 넘는 어르신 '10만명'... "아직 팔팔해요" 노인대국의 현실](#)

[서울신문_2025.9.16.](#)

["고졸이라고요? 연봉 5600만원 드릴게요"... '초유의 인재전쟁' 중인 日](#)

[서울경제_2025.9.16.](#)

건강

[치매 100만명시대... '어리석다' 뜻 담긴 용어 개정 논의 힘받을까](#)

[연합뉴스_2025.9.21.](#)

[잠자리에 누워 읽는 책이 수면 질 높인다... 단, 장르는 '이것'으로](#)

[헬스조선_2025.9.19.](#)

["상사·동료 존중 받지 못하는 직장인, 불면증 위험 1.5배"](#)

[연합뉴스_2025.9.22.](#)

기독교 · 종교

[목회자 세대 불균형 심화 "50~60대 집중, 30~40대 부족"](#)

[한국기독교공보_2025.9.15.](#)

기획기사 : [창간 60주년-한국인의 자화상], 중앙일보

["공정이 제일 중요, 이념갈등 가장 문제" 한국인, 이렇게 답했다 _2025.9.23.](#)

["얼굴이 곧 경쟁력"... 20대女 100%, 男 95%가 공감했다 _2025.9.23.](#)

[82%가 "정년연장 필요"... 주 4.5일제는 찬반 반반 _2025.9.23.](#)

[이대남 40% "나는 보수"... 이대녀의 4.4배 _2025.9.23.](#)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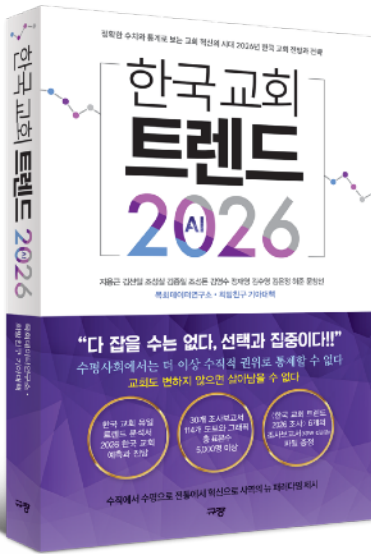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연구소 소식



출판기념회 초대 및 책 구입 안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출판기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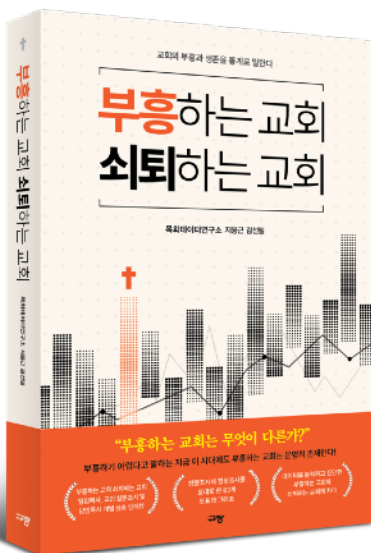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책을 9월 26일에 출간합니다. 출판기념회에 함께 자리하셔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4:00 ~ 15:30
- 2)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 3) 프로그램 : 기념식, 주요 내용 발표 및 저자 소개, 질의 응답

※ 오시는 분들(참석 신청자)에 한해 책 1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책 구입 안내

참석 신청(선착순 100명)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연구소 소식. 업무 협약(MOU) 체결

우리 연구소는 9월 21일(주일) FCI(퓨처처치연구소) (소장 명성훈 목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역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